

흡연과 남성기능

담배는 백해무익한 건강의 적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담배는 남성의 임신기능을 저해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즉 흡연은 정자의 생산과 정자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남성의 연령도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데 담배는 노쇠에 의한
 물건의 기능적 후퇴를 더욱 부추긴다. '흡연은 발기부전증을 유발하여
 사내 구실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구를
 담뱃갑에 명기하면 금연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답 배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담배의 해독에 대한 위협성 경고에도 우리는 꽤 익숙해져 있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건강의 적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금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필사적일 만큼 담배의 병폐를 외치고 협박(?)한다.

간접 흡연의 위험성도 밝혀져 있고 혐연권을 주장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예찬하며 지지하는 적극적인 애연가가 존재하고 그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습성화된 신체적 욕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중독의 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미국에서는 담배를 마약류로 선포하여 금연을 위한 대 국민계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작된 비디오 홍보물에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의 참혹한 흡연

재해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작한 금연 비디오에는 호화파티 석상에서 담배를 입에 문 신사가 등장한다.

아름다운 여성이 접근해오자 신사의 입에 물린 담배가 별안간 삶은 오징어처럼 흐물거린다. 무력화된 페니스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패러디다. 그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냉소를 남기곤 신사를 외면한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신사가 당황해하는 꼴이 흥미롭다. 흡연이 남성 기능을 파손한다는 강력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흡연은 발기력 저하 촉진

흡연과 남자의 성기능.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담배가 발기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이미 동물 실험에서 증명된 바 있다. 담배 두개피를 피우게 한 쥐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쥐에 비해 해면체 내압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흡연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남성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는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어느 한가지 요인만으로 남성 기능을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이 나이가 들어가면 성기능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둘 누적되어 남성 성기능을 무너뜨린다. 흡연자의 말초 혈관은 혈액 속에 흡수된 니코틴 때문에 비흡연자보다 혈관 벽이 두껍고 딱딱해지며, 혈관이 막히면 발기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성적으로 정상인 남성의 흡연은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기부전 위험인자를 내포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 급속한 발기력 저하를 나타낸다. 당뇨병, 동맥 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이 발기력을 훼손시키는 성인병 질환자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발기부전증의 찬스가 훨씬 높아진다. 담배는 또 남성의 임신 능력을 저해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정자의 생산과 정자 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져 임신이 어려울 때 금연을 실행하면 정자의 운동성이 개선되어 임신을 이루는 사례도 있다.

담배 끊어야 사내구실 한다

담배의 해악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널리 인식되고 있는 요즘, 다른 한편에선 담배 판촉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순. 흡연의 폐해를 노출시키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도 담배 판촉을 방치하고 있는 자가당착이 아이러니컬할 뿐이다.

‘흡연은 발기부전증을 유발하여 사내구실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구를 담뱃갑에 표기한다면 금연의 파급 효과를 한층 더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매하되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을 흡연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알팍한 술책이지만 말이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것처럼 엄격한 통제와 처벌이 따라야만 이 땅에 발기부전 남성이 줄어들지 모른다.

‘식후불연(食後不燃)이면 발기불능’이라는 금연(?)은 예전부터 애연가의 계명으로 애송되던 것으로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 들어보았음

직한 말이다.

‘식후흡연도 좋지만 뽀뽀뽀니해도 여명제일초(黎明第一草)가 죽여주지. 첫 새벽, 일어나자마자 입에 문 담배 한개피. 머리가 핑 돌면서 기분이 붕 떠오르지. 난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담배를 피우지’라는 애연의 변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허실을 따질 이유조차 없는 흡연가의 건강부회일 뿐이다. 담배 속에 함유된 유독 화학물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이다. 순수한 니코틴은 대단히 독성이 강한 무색의 액체로써 농업용 살충제나 수의과(獸醫科)에서 동물의 외부 기생충 살충제로도 많이 사용된다. 사람을 독살하는데 니코틴을 사용하는 추리소설도 있다.

니코틴의 치사량은 5mg

니코틴의 치사량은 약 5mg. 담배 한개피에는 적어도 10mg 이상, 많게는 30mg 정도의 니코틴이 들어 있으니 이같은 숫자로 보아서는 한 모금만 빨아도 곧 죽음에 이를 것 같다. 그러나 폐에서 흡수된 니코틴은 인체 내에서 재빠르게 대사되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담배 한개피를 피웠다고 당장 사망하지는 않는다.

어디 니코틴 뿐이라. 담배 한개피가 탈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는 20,000ppm 이상이다. 이만큼의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 10분 안에 죽는다. 그러나 이때도 당장 죽지 않는 것은 담배를 피울 때 여러 모금에 걸쳐 공기에 희석된 일산화탄소를 마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산화탄소의 해악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호흡이란 폐 속에서 혈색소(血色素)인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CO₂)를 분리시키고 산소 분자(O₂)와 결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일산화탄소의 헤모글로빈 친화력은 산소 분자에 비해 3백배나 높다. 결국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제치고 먼저 혈액에 흡수되어 일시적인 산소결핍증을 유발, 담배를 처음 피우는 사람에게 또는 흡연자라도 오랜만에 담배를 피울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된다. ‘여명제일초 운운’한 것도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산소결핍증에 다름 아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빈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인체 각 세포에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심장의 부담이 커져 심장질환의 우려가 높아진다. 남성의 성기는 심혈관계통의 한 지류(支流)요, 발기는 혈액의 충만으로 구현되는 오묘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일산화탄소 역시 만만치 않은 독소라는 데 공감할 것이다.

흡연이 가져다주는 해악이 의학적으로 이처럼 분명한데도 ‘식후불연이면 발기불능’, ‘여명제일초의 핑도는 느낌이 좋다’느니 하는 흡연자의 애연담(愛煙談)은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쇠퇴한다. 남성의 연장 또한 마찬가지다. 담배는 노쇠에 의한 물건의 기능적 후퇴를 더욱 부추긴다. 따라서 세상살이를 다하는 순간까지 침상에서 현역을 지키고자 하는 남성의 제1 수칙은 금연이다. 지금 당장 담배를 꺾지 않으면 당신의 핵심이 꺾이는 것이다. ㉟